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전남 건설업체

지역공사 수주 45%...전북 72%와 대조 불황에 기성액도 2년 연속 7.8%씩 줄어

지난해 전남지역 건설경기가 바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끝내고 받은 기성액이 2년 연속 7.8%씩 감소했고, 전남 소재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액이 물량의 절반도 안됐기 때문이다.

21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종합건설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공사 규모(기성액)는 총 6조98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8조2121억원, 2010년 7조5711억원으로 2년 연속 7.8%씩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전남지역 진행된 공사에서도 지역 건설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소재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액은 전체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5%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공사를 진행한 기성실적이 72.2%인 것과 비교하면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성적표다.

실제 지역 공사의 역외 유출은 심각하다.

전남지역 공사에 대한 타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은 지난 2002년 48.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4년 55.5%, 2006년 63.1%, 2007년 69.0%, 2008년 74.3%, 2009년 64.5%, 2010년 68.0%로 해마다 늘어 참여비중이 70% 수준에 급증했다.

반면, 전남 건설업체들이 타지역 공사에 참여한 비중은 2007년 71.2%에서 2009년 66.6%, 2010년 51.5%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 건설공사는 타지역 업체에게 내주고 타지역 공사는 따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지역은 더 심각하다.

광주지역의 지난해 기성실적은 1조9232억원으로, 전년 1조1496억원보다 67.3% 늘었다.

지난해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이 크게 늘어난데다 지역 대표건설사인 호반건설이 연고지를 전남에서 광주로 옮김에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에서 진행된 공사는 34.9%에 불과했다. 나머지 65%는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광주·전남 건설경기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계약액이 2조6432억원으로 전년(9233억원)보다 무려 186.3% 급증했다. 전남도 7조6364억원으로 전년(6조1034억원)보다 25.1% 늘어났다. 공사물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역외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대기업 외환위기 이후 폭풍 성장

15년간 영업이익 318%·매출액 449% 증가

10대 그룹 대표 기업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1997년 이후 '폭풍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말과 2011년 말 국내 10대 그룹 대표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영업이익은 11조원에서 47조원으로 318.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액은 15년사이 92조원에서 625조원으로 579.6%, 총자산은 111조원에서 613조원으로 449.0% 각각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349.2%에서 119.4%

로 229.8%포인트 감소했다.

10대 그룹 대표기업은 각 그룹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한항공, 한화 등이다.

롯데쇼핑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매출은 1조9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1057.4% 늘어났고, 영업이익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170.4%와 1402.9%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402.5%포인트 개선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롯데쇼핑에 이어 SK(934.0%), 삼성전자(793.6%), 현대자동차(567.1%), 현대중공업(539.7%), 포스코(498.5%), LG전자(414.5%), GS칼텍스(346.0%), 한화(244.9%), 대한항공(172.9%) 등의 순이다.

자산증가율도 롯데쇼핑이 가장 높았고, 현대자동차, SK, 삼성전자, 한화,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은 대한항공(-705.0%포인트)이었고 현대중공업(-452.4%포인트), 롯데쇼핑(-402.5%포인트), GS칼텍스(-341.8%포인트), SK(-325.0%포인트), 현대차(-318.5%포인트), 한화(-285.4%포인트), 삼성전자(-242.8%포인트), 포스코(-77.6%포인트), LG전자(-37.0%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자산증가율도 롯데쇼핑이 가장 높았고, 현대자동차, SK, 삼성전자, 한화,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은 대한항공(-705.0%포인트)이었고 현대중공업(-452.4%포인트), 롯데쇼핑(-402.5%포인트), GS칼텍스(-341.8%포인트), SK(-325.0%포인트), 현대차(-318.5%포인트), 한화(-285.4%포인트), 삼성전자(-242.8%포인트), 포스코(-77.6%포인트), LG전자(-37.0%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은 대한항공(-705.0%포인트)이었고 현대중공업(-452.4%포인트), 롯데쇼핑(-402.5%포인트), GS칼텍스(-341.8%포인트), SK(-325.0%포인트), 현대차(-318.5%포인트), 한화(-285.4%포인트), 삼성전자(-242.8%포인트), 포스코(-77.6%포인트), LG전자(-37.0%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은 대한항공(-705.0%포인트)이었고 현대중공업(-452.4%포인트), 롯데쇼핑(-402.5%포인트), GS칼텍스(-341.8%포인트), SK(-325.0%포인트), 현대차(-318.5%포인트), 한화(-285.4%포인트), 삼성전자(-242.8%포인트), 포스코(-77.6%포인트), LG전자(-37.0%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은 대한항공(-705.0%포인트)이었고 현대중공업(-452.4%포인트), 롯데쇼핑(-402.5%포인트), GS칼텍스(-341.8%포인트), SK(-325.0%포인트), 현대차(-318.5%포인트), 한화(-285.4%포인트), 삼성전자(-242.8%포인트), 포스코(-77.6%포인트), LG전자(-37.0%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은 대한항공(-705.0%포인트)이었고 현대중공업(-452.4%포인트), 롯데쇼핑(-402.5%포인트), GS칼텍스(-341.8%포인트), SK(-325.0%포인트), 현대차(-318.5%포인트), 한화(-285.4%포인트), 삼성전자(-242.8%포인트), 포스코(-77.6%포인트), LG전자(-37.0%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불황 장기화...농협도 몸집 줄인다

임원 줄이고 희망퇴직 확대 구조조정 나서

구조조정의 한파가 농협중앙회에도 불어닥쳤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달 말 각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어 임직원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인을 결정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초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신경분리)하면서 임원 수가 82명으로 늘었다. 중앙회와 각 계열사 직원을 모두 합치면 2만 명이 육박한다.

농협은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한 조직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조직 슬림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원 수는 최대 10% 가량 줄이려는 전망이다. '고액 연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상임이사(25명)도 내년에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직원들로 한정했던 희망퇴직은 근속연수 제한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직원 수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에서도 생산성이 하위권에 속하는 NH농협은행 등의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조직 슬림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원 수는 최대 10% 가량 줄이려는 전망이다. '고액 연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상임이사(25명)도 내년에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직원들로 한정했던 희망퇴직은 근속연수 제한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직원 수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에서도 생산성이 하위권에 속하는 NH농협은행 등의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농협은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한 조직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조직 슬림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원 수는 최대 10% 가량 줄이려는 전망이다. '고액 연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상임이사(25명)도 내년에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직원들로 한정했던 희망퇴직은 근속연수 제한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직원 수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에서도 생산성이 하위권에 속하는 NH농협은행 등의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

인구 규모 15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4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시아 시장 통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박태호 외교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로써 세 나라는 지난 2003년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인구 규모는 15억2200만명,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조3000억달러의 시장이 탄생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의 지역통합시장이다.

세 나라는 제1차 협상을 내년 3~4월께 한국에서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3국이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인구 규모 15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4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시아 시장 통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박태호 외교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로써 세 나라는 지난 2003년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인구 규모는 15억2200만명,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조3000억달러의 시장이 탄생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의 지역통합시장이다.

세 나라는 제1차 협상을 내년 3~4월께 한국에서 열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3국이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47억원짜리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

일본 도쿄의 한 보석상점에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21일(현지시간) 판매용으로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높이 2.4m, 무게 43kg인 이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는 디즈니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장식돼 있는데 가격은 무려 3억5000만원(약47억원).

일본 도쿄의 한 보석상점에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21일(현지시간) 판매용으로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높이 2.4m, 무게 43kg인 이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는 디즈니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장식돼 있는데 가격은 무려 3억5000만원(약47억원).

일본 도쿄의 한 보석상점에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21일(현지시간) 판매용으로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높이 2.4m, 무게 43kg인 이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는 디즈니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장식돼 있는데 가격은 무려 3억5000만원(약47억원).

현대차 호주 소비자 사로 잡았다 만족도 조사 4개 부문 1위

현대자동차는 호주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 업체인 캔스타 블루의 '2012년 자동차 만족도 조사' 7개 부문중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캔스타 블루는 3년 이내 신차를 구입한 7500명을 대상으로 7개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별 1개부터 5개까지 등급을 부여했다.

현대차는 종합 만족도 부문, 신뢰도 부문, 가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유일하게 별 5개를 받았으며 AS 부문에서는 도요타와 함께 별 5개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10년 종합만족도 부문에서, 2011년에는 세단 종합만족도 부문, 가치 부문에서 수위를 각각 차지했다.

올리버 만 호주 판매법인 마케팅 담당 이사는 "현대차가 고객 서비스와 만족도에서 리딩 브랜드로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 1~10월 호주에서 작년 동기보다 5% 증가한 7만 6036대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0.4%포인트 증가한 8.3%로 포드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국산차 수출, 아프리카가 아시아 제쳐

올 1~9월 14만6976대 작년보다 21% 증가

올해 들어 아프리카 시장이 급성장해 아시아보다 많은 국산차가 수출되는 지역이 됐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프리카에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14만6976대로, 아시아에 수출된 물량 12만9074대를 앞질렀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아시아(15만 7819대)에 아프리카(12만1030대)보다 많은 국산차가 수출됐으나 올해 아프리카는 21.4% 증가하고 아시아는 18.2% 감소하면서 뒤바뀌었다.

아프리카 시장 성장에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산업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신흥시장인데다 최근 북아프리카 지역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지면서 수요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마케팅 활동이 효과가 있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시장인 남아공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알제리·리비아·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지역도 경제 불안에서 벗어나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1~9월 아프리카 수출량은 10만4819대로, 작년(7만 8890대)보다 32.9% 늘었다.

한국지엠 관계자도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요 회복을 성장 요인으로 꼽으면서 "북아프리카로 선적한 차가 작년 한 해 1만5000대 정도였는데 올해 그보다 1만대 늘어난 2만5000대로 예상된다"며 "중형·중형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이 고루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아시아 산업 수요가 줄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라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84.04 (-6.14)
코스닥지수	492.19 (-4.47)
금리 (국고채 3년)	2.80% (0.00)
원·달러 환율	1083.20원 (+1.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CJ 헬로비전 www.cjhelle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계급,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넷 TV ▶ 헬로tv ▶ 헬로넷 ▶ 헬로폰 = SAVE 최대 56%

▶ 헬로셋 ▶ 1588-3450 ▶ 디지털 방송은 헬로tv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an Mi 한미금거래소

금맥을 캐내라!

금거래 비즈니스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범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